충남도립대학교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22살 17기 박○○입니다.
학교 재학 중에 경찰이 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필기:197.5
체력:34
총점:56.3 1배수 컷:57.2
수험생활: 1년

헌법

헌법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같은 의미이지만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법과 같이 단순 암기를 한다면 문제를 쉽게 틀리기 때문에 최대한 강의에 집중하고 판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헌법 기출은 한 번 정도 풀어봤고 나머지는 모의고사에서 틀린 부분을 기본서에 정리하고 회독 위주로 공부했던 거 같습니다.
(기본 강의--->심화 강의--->모의고사)

형사법

저는 충남도립대학교에 처음 입학하면서 경찰을 꿈꿔왔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윤황채 교수님의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형사법 공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출문제 반복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김대환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문제 자체를 외우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해서 틀리는 지문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은 기출문제집에 체크하고 따로 노트에 정리해 놓았다가 아침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읽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출문제 강의는 듣지 않았고 심화 강의는 다 듣지 않고 부족한 부분만 따로 들었습니다. 형사법은 기본을 잘 다지면 점수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틀리는 부분을 잘 체크해서 개념에 빈 부분을 채워나가게 좋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환 강사는 시험 50일 정도 남았을 때 진도별 문제 풀이 1000제라는 강의를 시작하는 데 그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문제를 외우다시피 푼다면 형사법 과목에 자신감이 붙으실 겁니다.
(기본강의--->기출문제 3회독---> 심화강의--->기출문제 2회독---->모의고사)

경찰학

경찰학... 경찰 시험에서 가장 힘든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학은 양이 너무 많고 문제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진도 나갈 때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진도 나갈 때는 하루에 6~8강 정도 듣고 한 강의가 끝날 때마다 쉬지 않고 바로 복습하고 다음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배운 내용을 백지 복습하면서 개념에 빈 부분을 체크하고 공부하였습니다. 진도를 다 나간 후에 심화 강의는 부족한 부분을 따로 듣고 기출문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 때에는 기본서 회독--->기출 문제 -----> 강의----> 틀린 거 체크하면서 기본서 회독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제 머릿속을 책에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진도를 나가면서 체크할 때는 초록색 형광펜을 사용했고 기출문제와 모의고사에서 틀린 부분을 체크할 때는 보라색 형광펜을 사용하여 나중에 회독할 때 틀린 부분만 볼 수 있게 책을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필기시험 2주 전까지만 해도 모의고사에서 경찰학 80점 이상을 맞아본 적이 없었지만 틀린 부분을 중점으로 체크하고 회독을 반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다 보니 2주 남았을 시기에는 점수가 80~90점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학에서 기본서에 꼼꼼히 정리하는 것과 회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강의--->심화강의(부분적으로)----->기출문제 2회독----> 모의고사+기본서 회독)

체력 시험(대학교 내)

체력 시험은 대학교 내에 있는 체력 측정 기계를 활용해서 운동했습니다.
매일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면서 센서 감을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면접 시험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면접 학원에 다니면서 면접 스터디를 만들어서 공부했고 1주일에 6번 스터디와 같이 모의 면접을 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면접은 모범답안을 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거 같습니다.
현재 25년도부터 단체면접이 사라지고 발표 면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분 동안 대본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생활 패턴

학기 중에는 7시에 일어나서 아침 8시까지는 학교에 가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강의를 하나라도 더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바로 고시반으로 가서 11시까지 공부하고 12시에 잠을 잤습니다. 학기 끝나고 방학에는 아침 9시까지 학교에 가서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기숙사에서 씻고 다시 학교에 나와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고시반에서 잠을 잤습니다.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공부하는 형들과 항상 10시에 시작했습니다. (실제 경찰 필기시험은 아침 10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항상 노량진에 있는 사람들 또는 경찰 시험에 전념하는 사람들과 경쟁한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앞서 언급한 사람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공부하는 시간에는 완전히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 경찰 준비를 하면서 외롭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는데 일기를 쓰면서 버텨나갔던 거 같습니다. 또 시험을 준비할 때 당장 바로 앞에 있는 시험에서 합격할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번에 준비 많이 안 해서 분위기만 보러 가는 거니까 혹은 나는 형사법 70점만 맞아야겠다 등등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한다면 다음 시험에서도 같은 변명을 하고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앞에 있는 시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시험에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다음 시험에서는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시험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자세와 방법을 알려주신 곽영길 교수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같이 경찰 시험을 준비하면서 먼저 합격하고 시험 준비하는 방법 등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알려준 10기 ○범이형과 이번 시험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합격한 9기 ○현이형 감사하고 사랑합니다.